

 <b>제주발전연구원</b>	<b>보 도 자 료</b>	담당	기획조정팀
	2009년 12월 22일(화요일)	연락	이상철 제주대 교수 010-7118-2785

## 문화예술 환경 질적 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조성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외부공모과제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 생활 실태조사”연구에서 제언

제주지역 문화예술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 어메니티 조성

첫째, 제주 문화예술 환경의 질적 발전과 확충을 위해 운영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 옛 시가지 외의 지역,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밀착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객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각종 시설을 지역별로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시설을 갖추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리민회관·문화의집·노인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져 소외된 지역이 줄어들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게 좋다. 문화관련 시설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럴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용자의 이용도 제고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된 유휴 공간 등을 문화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다.

어메니티에 따라 개발하면, 관광지가 단순히 외부의 관광객에게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2. 메세나 운동 활성화

첫째, 행정당국과 기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잇는 비영리적 매개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없는 지금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둘째,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세나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중앙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도 수준에서도 조례 등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내용에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항목이 필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문화예술품 유통시장의 조성 및 거래 활성화

첫째, 수요자 개인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품 거래의 활성화는 문화예술부문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소통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시장을 견인 유지할 중개조직(갤러리, 옥션 등)과 시장경험을 확산시킬 이벤트(벼룩시장 등)를 장려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문화예술 시장을 이끌고 유지시키기 위한 중개조직과 이벤트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문화예술품 구입과 유통을 위한 조직화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 4. 문화예술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첫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현재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과 각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전문적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와 공연 및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 주민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평일 여가시간은 평균 4.22시간이었고, 휴일 여가시간은 평균 6.29시간이었다. 여가시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7.3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2008. 9. 1 ~ 2009. 8. 3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의 집,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장(회관), 지방문화원(문예회관), 사설문화센터(대형마트, 신문사 등)의 10개 문화시설의 단순방문 경험에 따르면, 도서관의 연간 평균방문회수가 5.52회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관 3.43회, 사설문화센터 1.93회, 복지회관 1.58회가 그 뒤를 이었다. 연평균이용회수를 육지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수련원만 4.4%의 이용률로 같게 나타나고 그 외 시설들의 이용률은 제주가 육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을 제외하고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육지와 제주 모두 도서관이었는데, 육지가 16.2%였고, 제주가 26.6%였다. 박물관 역시 육지가 12.1%의 이용율을 보이는 데 비해 제주는 20.8%의 이용율을 보였다. 미술관과 공연장의 경우 육지에서는 항목이 묶여 있어서 11.5%였는데, 제주는 공연장이 27%, 미술관이 17.2%였다.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서 열리는 전시, 공연, 창작발표 등의 활동을 직접 참여하였던 경험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이 8%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이 7%, 공연장이 6.2%, 복지회관이 5%였고, 그 외는 5% 미만이었다. 연평균 활동회수로는 도서관이 1.19회였으며, 그 외는 1회미만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연평균활동회수는 사설문화센터 17.36회, 도서관 17.03회, 문화의집 11회, 복지회관 8회, 영화관 5.75회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평균관람회수는 극장영화(3.06)를 제외하면 1회 미만이었으며, 1회 이상 관람자의 평균관람회수는 극장영화가 6.48, 미술전시회가 2.73, 문학 2.31, 원예전시회 2.31, 전통예술 2.09, 클래식음악회/오페라 2.02, 무용 1.85, 연극/뮤지컬 1.79,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단위의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표 6-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극장영화를 제외하면 육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영화의 관람률은 육지의 경우 61.5%였으나 제주는 47.2%로 14.3%의 격차가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 창작경험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미술전시회로 3.8%였고, 문학행사와 연극/뮤

지컬이 각각 2.6%, 2.2%로 그 뒤를 이었다. 대중가요콘서트/연예와 영화 부문도 각각 1.6%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관련 인터넷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격차로 제주도민의 문화예술관련 인터넷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와 연극/뮤지컬의 경우에만 제주가 육지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들은 동호회 활동 비교에서 제주가 육지에 비해 가장 큰 격차로 활동경험이 높았던 것들이다. 이로써 동호회 활동 비율이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나 인터넷이용 경험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미술관,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사설문화센터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고, 공연장, 영화관, 복지회관, 지방문화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설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의 값이 같았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였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문학행사, 원예전시회,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에 대한 관람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2.0%, 31.4%, 36.1%, 36.1%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 극장영화에 대한 관람만족도는 조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37.8%, 43.6%로 나타났다. 대중가요 콘서트/연예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조금만족이 36.3%로 같았으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보통이 31.8%로 같았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요소를 살펴보면, 관람비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다. 관람비용의 적절성 다음으로, 그러나 큰 차이 없이 제주도민이 문화예술행사의 관람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38%인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었다. 이는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하는 주최측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항목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나타났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비용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보다 컸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은 시간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문학동호회의 경우, 감상 동호회와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3.3으로 같았으며, 영화동호회의 경우, 감상 동호회의 활동

만족도가 3.75로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 3.40보다 높았다. 그 외의 동호회는 창작 및 발표 동호회가 감상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큰 무용동호회는 감상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2.79인데 비해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4.00이었으며, 저통예술 동호회는 감상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3.09인데 비해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4.40이었고, 원예전시회는 감상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3.17인데 비해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4.00이었다. 대체로 창작 및 발표 동호회의 활동만족도가 감상 동호회에 비해 높았다.

창작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관람자나 창작 및 발표 경험자를 비롯한 모든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34.5%인 시간의 문제가 꼽혔고, 비용의 문제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7.4%였고, 관련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4%였다. 교통 및 시설의 불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참가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서, 육지의 경우 61.5%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제주의 경우는 44.3%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육지 7.4%에 비해 제주가 16.2%로 높아 지역축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만족도는 육지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육지는 3.65였으나, 제주는 2.64에 불과하였다. 제주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보완해야 할 점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주도민의 참여욕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의 경우 주민참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14.2%로 육지의 3.9%에 비해 네 배 정도 많았다.